

# 학교 문법에서의 ‘인용’과 ‘인용문’

이지수\*

## 차례

1. ‘인용’의 개념과 정의
2. 인용과 인용문
3. 인용격 조사와 인용 어미
4. 인용절과 안긴 문장
5.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용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인용이 언어 표현과 관련하여 사용(use)이 아닌 언급(mention)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이는 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요한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기존 인용 교육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인용은 누군가의 말, 글, 생각을 빌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화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 일반적인 문장 표현과의 구분이 어려운 지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인용을 정의할 때는 인용 표지, 인용 동사, 인용문 등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인용 표지의 문법적 특성, 인용 동사의 유형, 인용절의 통사적 특성 등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때 인용 표지는 인용격 조사로 보는 관점과 어미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를 설정하고 조사가 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학교 문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인용 표지를 인용격 조사로 다루는 것이 기존 학교 문법의 틀에 맞다고 할 수 있다. 또 인용절의 경우에는 명사절로 볼 것인가 부사절로 볼 것인가가

---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인용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식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인용, 인용 교육, 인용 표지, 인용 동사, 인용절, 인용문

## 1. ‘인용’의 개념과 정의

‘인용’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말이나 글을 자기 말이나 글에 끌어다 쓰는 것’이다.<sup>1)</sup> 그렇지만 이는 학술적인 개념어로 사용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말이나 글’의 존재 방식과 인용의 관계가 충분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이용하되 형식이 기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같은 내용이라도 원래의 형식과 인용된 형식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국어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인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음을 보자.

- (1) ㄱ. 그 쪽지에는 ‘사랑해’라고 써 있었다.
- ㄴ. 그 쪽지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써 있었다.

위의 둘을 비교할 때 좀 더 인용에 가까운 것은 (1ㄱ)이다. (1ㄴ)은 인용인지 확신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인용한 원래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인용이 형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인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래의 형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ㄱ)이 (1ㄴ)보다 인용에 가까운 것은 원래의 형식인 ‘사랑해’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인용은 원래의 말과 글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이다. 앞으로 언급하는 국어사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원래의 말이 없는데 인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원래의 말이 누구의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속담이나 격언, 유행어 가운데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공유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들은 특정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과 같이 약간의 변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까마귀 나는데 배 떨어지니까’와 같이 문장을 통째로 변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이러한 속담이나 격언 등이 누군가의 발화의 자격으로 화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가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할 때 지체하지 않고 그러한 형식의 표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이들이 온전한 발화의 자격으로 저장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이 발화의 자격으로 저장되어 있고 일정한 형식을 유지한 채 사용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속담을 사용할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더니’처럼 일반적인 인용 형식으로 쓰인다는 것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즉 일반적인 문장의 생성과는 달리 이들은 특정한 형식의 문장으로 저장되어 있고, 우리는 그 발언을 언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다.<sup>2)</sup>

인용은 누군가의 말이나 글뿐 아니라 생각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너는 마치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듯했어.”와 같은 문장은 타자의 생각을 발화된 언어로 대상화하여 인용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의 생각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인용의 형식으로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꼭 산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종일 앉아만 있었어.”와 같은 문장은 화자 자신의 생각을 인용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

2) 일반적인 단어와 관용 표현 등은 사용(use)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속담이나 격언은 언급(mention)되거나 인용(quotation)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Lyons(1977), 박진호(2003)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교 교육에서 규정하는 ‘인용’의 개념이 이와 같은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국어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부 논의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 ㄱ. 학교 문법에서 인용의 개념과 원리는 무엇인가?
- ㄴ. 학교 문법에서 인용의 표현 방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 ㄷ. 학교 문법에서 인용 조사와 인용 어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ㄹ. 학교 문법에서 인용절과 안긴 문장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 2. 인용과 인용문

교육의 장에서 ‘인용’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인용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인용’이라는 용어의 개념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인용’이라는 용어가 ‘형태소’, ‘관형어’, ‘문장’ 등과 같이 국어학과 국어교육학의 학문 영역에서 특정한 개념을 나타내는 문법 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된다.

그런데 인용은 형태소, 관형어처럼 국어의 특정한 현상이나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기 어렵다. 사실 수사법의 ‘인용’과 국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인용’이 근본적으로 구별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sup>3)</sup> 따라서 국어학에서 인용이라고 할 경우 특정한 절차와 표지를 기준으로 인용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학교 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동안 인용의 기준으로 ‘라고/고’와 같은 인용 표지와 ‘말하다’로 대표되는 발화 동사의 쓰임을 제시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국어사전에서 ‘인용법’을 수사법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문의 경우 큰따옴표와 같은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인용’이 수사법의 일종으로 사용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학교문법에서 지금까지 인용과 관련된 요소로 제시해 온 것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sup>4)</sup>

- (3) ㄱ. 인용절, 안은문장, 인용문
- ㄴ. 인용 표지: 고, (이)라고, 하고
- ㄷ. 인용 동사: 발화 동사, 사유 동사…

국어의 인용문에는 위와 같은 요소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인 표지는 제시된 문장이 인용문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여기에서 인용문에 나타나는 ‘인용 동사’는 흔히 발화 동사와 사유 동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화 동사는 실제로 발화가 나타나는 동사이고 사유 동사는 생각을 드러내는 동사이다. 발화와 사유가 문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인용절이 될 수 있는데, 이때 특히 주의해서 살펴야 할 부분은 사유 내용이 인용절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누군가의 ‘발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 (4) ㄱ.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 ㄴ.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위에서 제시한 인용절은 사유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발화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유의 내용일 경우 인용절이 발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즉 (4ㄱ)에서 인용절이 나타내는 내용은

---

4) ‘인용 표지’는 학교 문법의 인용격 조사 ‘(이)라고’와 ‘하고’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인용 동사’는 ‘인용절’을 이끄는 동사를, ‘인용절’은 누군가의 발화가 절의 형태로 인용된 것을 말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간접문장’과 ‘절’이 모두 나타나지만 본고에서는 ‘절’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기술의 편의를 위해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의미로 ‘인용문’을 사용하는데 이는 ‘인용절’과 구분되는 것으로 현재 국어사전에서의 ‘인용문=인용절’의 정의와는 다른 것이다. 한편, 학교 문법에서 친숙하지 않은 ‘피인용절’, ‘피인용문’, ‘인용 보문’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화자 스스로 생성한 것이지 다른 화자의 발화를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4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발화의 내용이긴 하지만 화자의 사유를 표현한 것이므로 역시 다른 화자의 발화를 옮겨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서의 인용은 사실 ‘언급’된 내용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언어 사용과 다르지 않다. (4)는 형식상 인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인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용’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언어를 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필영, 1993:11)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는 일반적인 문장에 대한 정의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국어에서 인용문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인데 위와 같은 정의로는 그러한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모든 발화는 언어를 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문장이 인용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인용문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일반적인 언어 표현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인용은 언어를 표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일반적인 표현은 사물이나 사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은 언어를 ‘사용(use)’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를 ‘언급(mention)’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6)   ㄱ.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나. 철수는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 철수는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6ㄴ)은 인용문이지만 (6ㄷ)은 인용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6ㄱ)의 언어 형식이 (6ㄴ)에는 유지되고 있지만 (6ㄷ)에는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의 발화가 지니고 있는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용이 언어를 표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보여 준다.<sup>5)</sup>

이러한 점은 적어도 두 가지 관점에서 인용문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인용문을 좀 더 제약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전제 작업으로 인용이라는 개념이 국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어교육적인 관점에서 ‘인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 ㄱ.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잖아. 말 조심해.
- 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우리 집의 가훈이다.
- ㄷ. 아니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 ㄹ. 슬기야, 지뭇미 πππ

국어에서 속담이나 격언은 이미 발화된 것을 언급하거나 인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진호 2004). 속담이나 격언은 이미 언급된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가 화자가 필요할 때 인용을 통해 사용되는 것이다. (7ㄱ)에 속하는 속담류가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고 하더니 …”처럼 인용문의 형식을 띠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7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家和萬事成’은 이미 언급된 내용으로 인용을 통해 사용된다. (7ㄷ)의 ‘오리발’은 ‘닭 잡아 먹고 오리발을 내민다’에서 압축된 표현으로 이 또한 인용의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에 만들어진 신어

5) 이러한 논의는 이필영(1993:11-12)을 참조할 수 있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7ㄷ)의 ‘지못미’는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를 압축한 것으로 문장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 또한 이미 언급된 것으로 인용을 통해 사용된다.

이러한 인용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형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화자는 자신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보다 전형적인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형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언어 공동체에서 전형적으로 공유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어에서 ‘인용’의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이처럼 인용의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 국어에서 유효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 표현에서 인용의 방식이 나타내는 개념과 위치를 적절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국어교육적 관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인용격 조사와 인용 어미

인용 표지와 관련해서는 ‘고, (이)라고’를 조사로 볼 것인지, 어미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sup>6)</sup>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이에 대해 조사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용격 조사’인지 ‘인용의 조사,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하고’의 문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확정해야 한다.

인용 표지를 조사로 다루는 것은 조사가 격을 나타낸다고 하는 학교 문법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주격은 주격 조사,

6) 기존의 논의 가운데는 인용 표지를 조사나 어미가 아닌 ‘보문소’로 다루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학교 문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목적격은 목적격 조사, 보격은 보격 조사, 서술격은 서술격 조사가 나타난다는 형식 위주의 접근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인용 표지를 조사로 다루는 것은 인용의 절차를 격을 나타내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점이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고, (이)라고’는 인용격 조사라고 하는 편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고 인용격을 설정하고 인용 표지를 인용격 조사라고 하는 현재의 논리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인용을 나타내는 절차가 일반적인 ‘격’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격이란 서술어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인용의 절차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 (8) ㄱ. 동생이 밥을 먹는다.  
 ㄴ. 동생이 “밥 먹어”라고 말했다.

(8ㄱ) ‘동생이 밥을 먹는다’에서 ‘먹는다’는 ‘동생’, ‘밥’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다. 조사 ‘이’, ‘을’은 그러한 관계를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 (8ㄴ)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말하다’가 인용절인 ‘밥 먹어’와 필연적인 관계에 놓이고 ‘라고’는 그러한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먹다’가 주어와 목적어를 취하듯 ‘말하다’가 ‘인용절’을 취하는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둘이 위상을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 (9) ㄱ. 먹다 [동]【…을】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낸다.  
 ¶ 밥을 먹다/ 술을 먹다/ 약을 먹다/ 물을 먹다/ 음식을 배불리 먹다…  
 ㄴ. 말하다 [동]【…을 -고】【…을 -게】평하거나 논하다. ¶ 사람들은 흔히 내 글을 관념적이라고 말한다. ㄹ 그는 김 과장을 좋지 않게 말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9)와 같이 ‘먹다’와 ‘말하다’가 다른 문장 요소와 형성하는 관계를 동등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sup>7)</sup> 실제로 국어사전에서는 ‘라고’를 인용격 조사로 명시함으로써 인용의 절차가 ‘격’이라는 학교 문법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10) 라고 「조사」((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원래 말해진 그대로 인용됨을 나타낸다. ♣ 주인이 “많이 드세요.”라고 권한다. / 그중 하나가 나서서 “내가 바로 흥길동이다.”라고 소리쳤다…

이러한 관점은 인용문을 다른 유형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서술어가 인용격 조사를 통해 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격조사 앞에 명사구가 아닌 절이 나타난다는 것뿐이다.<sup>8)</sup>

그렇지만 인용격 조사는 다른 격과 비교할 때 명사구와 절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위의 (9ㄴ)에서 알 수 있듯이 ‘[…을 -고]’ 대신에 ‘[…을 -게]’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먹다’가 ‘동생이 밥을 먹는다’뿐 아니라 ‘동생이 밥까지 먹는다’와 같이 격조사 대신 보조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다. ‘먹다’와 관련된 성분이 격조사 대신에 보조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더라도 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용절 대신에 부사절이 나타나는 것은 문장의 범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다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인용절과 인용 동사의 관계가 목적어와 타동사의 관계처

7) 국어사전에서 ‘라고’가 인용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기술되는데도 문법 정보에서 인용격을 다른 격조사와 달리 ‘【…을 -고】’와 같이 표시하는 것은 인용격 조사 앞에는 명사구가 아닌 절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고’를 어미로 이해하고 인용 표지를 어미로 파악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8) 학교 문법이 아닌 경우에 ‘동사구 보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러한 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럼 필연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격이라기보다는 인용 동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인용절이 나타난다고 기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라고’를 격조사가 아니라 어미로 다룰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용 표지가 어미라고 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문장을 서로 치환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2) ㄱ. 사람들은 한국의 가을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ㄴ. 사람들은 한국의 가을을 아름답게 말한다.

위의 밑줄 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와 같이 인용절을 부사어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사어와 대체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인용절은 일종의 부사절이라 할 수 있고 인용절은 인용 동사인 ‘말하다’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밑줄 친 부분은 ‘사람들은 그것을 말한다’와 같이 명사구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인용절이 명사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용 표지가 조사인지 어미인지는 인용절을 부사절로 인식하는지, 명사절로 인식하는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사절로 인식하는 경우, 인용 표지는 어미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지만 명사절일 경우에는 어미보다는 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용 표지를 어미로 기술할 경우 (12ㄱ)의 인용절 ‘아름답다고’에서 무엇을 어미로 확정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아름답게’와 비교하면 ‘아름답-’과 ‘-다고’를 분석해서 ‘-다고’가 어미인 것으로 기술할 수 있고, ‘아름답다’와 ‘-고’를 분석해서 ‘-고’를 어미로 기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종결 어미 다음에 다시 어미가 결합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문법의 관점에서는 ‘-다

고'를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로 기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로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마고' 등이 존재하게 된다.

한편 인용 표지로 쓰이는 '하고'에 대한 논의는 '라고'와 동등한 인용의 표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놓인다.

- (13) ㄱ. 할아버지께서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하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며 감탄하셨다.  
 ㄷ. 할아버지께서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시며 감탄하셨다.

(13ㄱ)의 '하고'는 주어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고'로 실현되는 데 비해 (13ㄴ)의 '하며'는 (13ㄷ)처럼 '하시며'로 실현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는 '하고'가 '하며'에 비해 인용의 표지로 굳어진 데 비해 '하며'는 여전히 동사 '하-'와 연결 어미 '-며'가 결합한 구성이라는 의미라는 뜻이다.

이러한 가정은 '하고'와 '말하다'가 바로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받을 수 있다.

- (14) ㄱ. 할아버지께서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ㄷ. \*할아버지께서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하며 말씀하셨다.

(14ㄱ)처럼 '하다'는 '말하다'를 대신해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14ㄱ)의 '하고 말하다'와 (14ㄴ)의 '하며 말하다'는 의미상으로는 '말하고 말하다', '말하며 말하다'가 될 수 있는데 '하고 말하다'는 '라고'처럼 인용의 표지로 정착되어 가능하고, '하며 말하다'는 그렇지 않아서 의미의 중복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하며 말하다'의 '하-'는 '말하다'를 대신

하는 기능이 살아 있고 존칭의 ‘-시-’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 ‘하’라고 할 수 있지만 ‘하고 말하다’의 ‘하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문법에서는 아직 ‘하고’를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하고’가 인용의 표지로서 지닌 기능과 문법화 정도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 4. 인용절과 안긴문장

국어에서 ‘인용’은 실제로는 ‘인용절’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문장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인용절은 기존의 발화나 사유의 내용이 안은문장에 절의 형태로 안긴 것이다. 절은 역할에 따라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과 같이 명명되는데, 인용절은 이들과 비교할 때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그것의 실현 방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인용절은 ‘인용’의 방식으로 형성되었음을 뜻한다. 인용절의 경우에도 절의 기능에 초점을 두자면 명사절이나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sup>9)</sup>

인용절로 안기는 문장은 이미 언급된 발화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의 발화를 전제로 ‘인용’이 될 수 있고 인용문이 성립한다. 인용절의 문법 범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사적일 수도 있고 부사적일 수도 있다. 인용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처럼 인용 동사의 목적어나 주어로 기능한다는 뜻이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처럼 인용 동사를 수식한다는 뜻이다. 이는 ‘그것을 말하다’와 ‘그렇게 말하다’가 모두 가능한 것과 동일한

9) 그렇지만 이럴 경우 기존의 명사절, 부사절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문장이 안길 때 ‘명사절로 안긴다’와 같은 표현을 한다면 ‘인용절로 안긴다’는 표현이 일관성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현상이다. ‘그것을’과 ‘그렇게’의 자리에 인용절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 (15) ㄱ. 사람들은 한국의 가을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그것  
           의 부족한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ㄴ. 사람들은 한국의 가을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는 그렇  
           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용절은 ‘그것이’, ‘그렇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인용절을 대체하는 것인지 인용절이 표현하는 명제의 내용을 대신하는 것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이는 인용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명제와 형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비롯한다. 전적으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형식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적 관점에서는 인용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인용절이 지닌 문법적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의 개념적 기능적 특성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절, 안은문장, 안긴문장’ 등과 같이 겹문장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국어에서 ‘인용’은 인용절로 안기는 겹문장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인용’의 개념은 속담이나 격언 등과 같이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과 관련이 있다. 인용은 누군가의 말, 글, 생각을 빌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화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장 표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용을 정의할 때는 인용 표지, 인용 동사, 인용문 등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학교 문법에서 인용과 관련해서는 인용 표지의 문법적 특성, 인용 동사의 유형, 인용절의 통사적 특성 등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용 표지는 인용격 조사로 보는 관점과 어미로 보는 관점이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서술격 조사를 설정하고 조사가 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술한 것을 고려할 때 인용 표지를 인용격 조사로 다루는 것이 학교 문법의 틀에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 어미로 해석할 경우와의 비교에 대한 문법적 탐색도 가능하다. 또 인용절의 경우에는 명사절로 볼 것인가 부사절로 볼 것인가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인용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형식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와 관련이 있으므로 학교 문법에서도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인용이 언어 표현과 관련하여 사용(use)이 아닌 언급(mention)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을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데 주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교육인적자원부,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2002.  
 —————, 『문법(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I 국립국어연구원, 2000.  
 권재일, 「한국어 인용 구분 유형의 변화와 인용 표지의 생성」, 『언어학』 22, 언어학회, 1998, 59-79면.  
 —————,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1985.  
 김건희, 「인용절에 대한 재고찰 - 내포절 체계 내의 다른 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글』 307, 한글학회, 2015, 125-169면.  
 김광해 외, 『국어지식 탐구』, 박이정, 2000.

- 김선혜, 「한국어 내포문 체계에 대한 재고 - 부사절과 인용절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 우리어문학회, 2014, 131-156면.
- 김수태, 「인용절과 완형보문」, 『국어국문학지』 33, 국어국문학회, 1996, 51-70면.
- 김영희,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1988.
- 남기심,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한국학연구총서』 1,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3.
- ,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민현식, 『국어 문법 연구』, 역락, 1999.
- 박재연, 「인용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방법」, 『한국어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2012, 205-229면.
- 박진호, 「관용 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41, 국어학회, 2003, 361-419면.
- 서덕현, 「인용 표시와 인용 부호의 실용적인 문제」, 『국어교육학연구』 13, 국어교육학회, 2001, 203-235면.
- 서정수,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송창선, 「국어 인용 표시 ‘이라고, 고’의 문법적 특성」, 『어문학』 131, 한국어문학회, 2016, 33-54면.
- 안경화, 「한국어 인용 구문 연구: 유형과 융합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5.
- 안명철, 「현대국어의 보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 「동사구 내포문」, 『문법 연구와 자료』, 태학사, 1998, 517-550면.
- , 「보문의 개념과 체계」, 『국어학』 33, 국어학회, 1999, 337-365면.
- 안주호, 「인용문과 인용표지의 문법화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10권 1호, 담화와 인지학회, 2003, 145-165면.
- 엄정호, 「보문자의 개념과 국어의 보문자」,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2005, 201-224면.
- 유현경,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2002, 99-122면.
- 윤정원, 「인용절의 범주화에 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55,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2011, 169-190면.
- 이관규, 『학교문법론(개정판)』, 월인, 2002.
- 이규호, 「복합 조사 ‘이라고’의 생성과 분화」, 『국어학』 47, 국어학회, 2006, 145-177면.
- 이금희, 「인용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어미·조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5.



- 이선웅,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검토」, 『어문연구』 1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447-472면.
- \_\_\_\_\_,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2012.
- \_\_\_\_\_. 이은섭, 「이론 문법의 관점에서 본 학교 문법」,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2013, 249-277면.
- \_\_\_\_\_,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총론」, 『국어학』 69, 국어학회, 2014, 167-205면.
- 이익섭 · 임홍빈, 『국어 문법론 연구』, 학연사, 1992.
- \_\_\_\_\_. 채 완,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
- 이필영, 『국어의 인용 구문 연구』, 탑출판사, 1993.
- 이현희, 『중세 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1994.
- \_\_\_\_\_,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4, 57-81면.
-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2000.
- 임동훈, 「통사론과 통사 단위」, 『어학연구』 31-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95, 87-138면.
- 정희창, 「중세 국어 인용문에 나타나는 ‘하야’의 문법 범주」, 『어문연구』, 30-3, 어문연구회, 2014, 57-72면.
- \_\_\_\_\_,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국어학』 69, 국어학회, 2014, 233-254면.
- 주세형, 「학교 문법 다시 쓰기(3): 인용 표현의 횡적 구조 연구」, 『새국어교육』 8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269-289면.
-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태학사, 2013.
- 최재희, 「학교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2011, 87-130면.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61.
- 허 응, 『국어학』, 샘문화사, 1983.
- \_\_\_\_\_,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1999.

Lyons, J.,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Abstract*

'Quotations' and 'Quotations' in school grammar

Lee, Ji-su

This study discusses that quotation is related to 'mention' rather than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problem of existing quotation education based on the fact that it can be a main criterion for understanding and systematizing the language ability of Korean speakers.

Quotations are often borrowed from someone's words, writings, or thoughts, but if you think about expressing your own thoughts, you may fi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from common sentence expressions. Therefore, when defining quotations, formal standards such as quotation marks, quotation verb, quotations, etc. are required.

In relation to citation in school grammar,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quotation mark, the type of the quotation verb, and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quotes have been discussed. Although the quotation marks have a point of view as a quotation postposition and a point of view as a ending, when considering the attitude of the school grammar which describes the quotation post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handling of quotations is in line with the existing school grammar framework. In the case of a quotation, there is a confrontation between whether it is a noun clause or an adverbial clause, which is related to the content and format of the quotation.

【Key words】 quotation, quotation education, quotation verbs, Korean education

논문 투고: 2017년 2월 28일, 심사 완료: 4월 11일, 게재 확정: 4월 12일.